

국가예산 · 현안 대응 전방위 공조

도, 전북 연구 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본격적인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전복도가 정치권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다지며 총성 없는 국가예산 확보 전쟁터에서 탄탄한 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전날 지역 국회의원들에 이어 26일에는 전북연구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가예산 최대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대응 전략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여의도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과 홍영표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정의당 배진교, 심상정 의원 등 여야 구분 없이 전북연구 국회의원이 참여하며 전북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었다.

전북도에서도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행정부지사, 실국장들이 총 출동하여 열린 논의와 함께 해법 찾기에 머리를 맞댔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치권과 도가 함께 힘을 모아 대규모 국가사업 연속 유치 등 전북발전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며, "이는 전방위적 협치의 실현과 제도화로 이뤄낸 성과로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으로 새로운 전복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복도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 예산심사에서 반드시 중역 반영되어야 할 중점사업들을 중심으로 연구 국회의원의 원별 전략적 역할 분담을 요청하고 분야별 핵심사업 26건이 꼭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진 당면 현안 건의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 국회에서 장기 계획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새만금사업



26일 서울 여의도 컨벤션호텔에서 열린 전북 연구 국회의원-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연구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여 2023년도 국가예산 협조 및 전북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건담 갖고 회의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 함께 새로운 전복 조성 관심 · 지원 요청

문체위 등 국회 상임위 찾아 전북 현안 예산 반영 건의

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현안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자산운용 금융기관 전복 이전과 전복 금융중심지 지정 등 현안 해결에도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김지사의 행보는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곧바로 국회 활동으로 이어졌다.

먼저 홍영표 문체위 위원장에게는 태권도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와 영화의 도시 전주를 서남권을 대표하는 영상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한국영화(k-film) 제작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 구축 사업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김영진 환노위 간사를 만나 작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착수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반영과 새만금산단 기업유치 및 공공수역 수질 보

전을 위한 군산 국가산업단지 폐수중 말처리장 설치(2단계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반영을 요청했다.

한편 전복도는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사에 대응해 정치권과 탄탄한 공조 체제를 기반으로 단계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를 중심으로 11월 한 달 동안 예결위원장 및 안당 간사, 예결소위 위원, 기재부 예산실장 등 예산중역 핵심인사를 비롯해 각 당대표 및 원내대표 등 국회 핵심인사를 대상으로 국가예산 확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해양수산 현안 해결 입법 발의

불법어업 담보금 피해 어업인 지원법 등

민주 윤준병 의원, '정책국감' 앞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26일, 국정감사 동안 해양수산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한 치밀한 자료 분석과 날카로운 지적에 이어, 대안 제시로서 입법 발의에 나서면서 '정책국감'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의원은 불법조업 외국어선 실태와 불법어업이 횡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해야 할 어업지도선들의 심각한 노후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단속에 걸린 불법어업 외국어선들이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한 담보금이 불법어업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간 지적에 이은 대안 제시로서 윤 의원은 불법어업 외국어선들에게 부과하는 추징금과 국고로 귀속되는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외국인의 불법 어업 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불법어업 담보금 피해어업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윤 의원은 최근 3년간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중금속과 항생제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중 단 10%만이 폐기 처분되고, 나머지 90%는 출하연기 또는 용도전환을 통해 시중 또는 수출용으로 유통된 점을 지적하며,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 되도록 안전성 조사 및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농지·어장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폐기처분 및 사용금지를 의무화하고, 다만 총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전환·출하 연기 및 일시적 출하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법'도 대표 발의했다.

이 외에도 공적자금 상환을 조기 완료한 수협중앙회가 자기자본으로 수산·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사업특별회계의 귀속 및 잉여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개선하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가격 안정화 및 높은 생산자 만족도에도 3년마다 재검토를 받아야 하는 뱀장어(민물장어) 의무우판제를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돼 수산·어업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음=김대환 기자

국정원 "SI에 '월북' 단어 들어가 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휴민트 中어선 승선 사실 아냐"

국가정보원은 서해 북방 피살 공무원 사건 SI 첩보와 관련해 "월북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26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국정감사 중간에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사건 주요 정보는 SI 첩보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월북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도 해왔다"며 "질의가 있었지만 수사 중 사건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 국민의힘 이상범 의원은 당시 휴민트가 주변에 있던 중국 어선에 탑승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중국 어선이 주변에 있었는지 유무를 파악하지 못했고, 휴민트 승선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월북이 불분명하다 분석 자료 작성 여부에 대해선 "수사 중 사안으로 답변 불가" 입장이었고 이견 제시가 없었던 관계장관 회의의 월북 분석 자료 보고자에 대해서도 "확인 불가"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합동참모본부 발표 5분 전 표류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 주장에 대해선 "국정원도 합참 정보를 받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규현 국정원장이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권춘택 1차장, 김 원장, 김수연 2차장, 조상준 기초실장은 국감 시작 전 일신상의 이유로 시의를 표명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아 확인했고, 감사원에서 약간 착오가 있는 것으로 인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야당 간사는 국감에서 쌍방을 의화 발언을 의혹 관련 질의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국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중국 지린성 훈춘에 있는 쌍방을 공장에 민주당 전 대표가 방문한 것을 확인했는지 질의도 있었는데 국정원은 "그에 대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

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수부 회장의 방북 유무에 대해선 일부 파악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추진 상황 인지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날짜를 특정할 순 없지만 적절한 시기에 법 통과 전 동향 보고를 관련 부처에 했다"는 게 국정원 입장이라고 야당 간사는 전했다. /뉴시스

민주 도당 선출직공직자 역량강화 워크숍, 28~29일 무주서

尹정부 민생파탄 검찰독재 규탄 결의대회도 함께 진행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민주당 소속 전북지역 선출직공직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한다

무주 태권도원에서 진행될 이번 워크숍에선 지방의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의 민주당

이 나이갈 방향, 한병도 도당위원장의 인구감소 시대 전라북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강화 및 의원들 간 상호 소통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또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찰독재 규탄 결의문 발표

손 씻기·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를 통해 최근 기습적으로 강행된 제야당 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강력 규탄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당 관계자는 "명분없는 정치검찰의 보여주기식 제야당 압수수색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정치탄압 규탄대회를 통해 강력하게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NH 농협

축! 전주매일 창간 100주년 기념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여러분의 곁엔 늘 농협이 함께합니다

NH Nonghyup 장수군 농협일동

- 농협중앙회장수군지부
- 장수농협협동조합
- 장계농협협동조합